

● 연중 제 23주일강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요?
"남이야 전봇대로 이를 쏘시킨 말건 무슨 상관이나?"한 마디로 참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남의 일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뿐더러 특히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오늘 독서와 복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1독서에서 하느님께서 는 누가 악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지나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경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첫값을 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마태 18,15)하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타일러도 말을 잘 듣지 않고 선생님이 학생을 야단치기라도 하면 봉변당하기 쉬운 시대가 요즈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서는 잘못된 길을 가는 이에 게 바른 길을 가도록 충고해야 할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바른 길을 안내할 수 있을까요?

신부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는 동안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2년을 지내면서 앞날이 혼미하던 그 시절, 답답한 마음에 어떤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1년 반을 지냈는데 어느 날 새벽 4시쯤 집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가니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왜 담을 넘어오느냐? 벨을 누르면 언제든 문을 열어줄 터이니 다시는 담 넘어 다니지 말거라."
어머니께서는 이 말씀만 하시고는 두말도 없이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한 말씀이셨지요. 그 다음부터는 밤늦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충고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제2독서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로마 13,8)라며 사랑이 충고의 정신임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대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기 마련입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의 「장발장」 이야기를 아시지요? 주인공 장발장은 너무 배가 고파서 나머지 빵 한 조각을 훔쳐 먹습니다. 그리고 이 빵 한 조각 때문에 수감과 탈옥을 반복한 끝에 19년간 중노동을 선고받고 출소하지만 전과자란 낙인 때문에 어디도 몸을 두지 못하고 미움과 적개심만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의 안내로 밀리에르 신부를 만나게 되고 하룻밤을 성당에서 묵게 됩니다. 신부는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먹을 것을 주며 위로합니다. 장발장은 처음 받는 인간적인 대접에 감격하게 되고 양심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신부가 잠든 사이 장발장은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은 접시를 집어 들고 도망칩니다. 경찰에 붙잡힌 장발장은 성당으로 끌려오지요.

"신부님, 혹시 은 접시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이 성당에서 훔친 것 같아 검문하다가 잡아왔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장발장을 바라보고 있던 신부님이 대답하지요.

"아닙니다. 그 접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은촛대까지 그에게 가져가라고 쥐어줍니다.

그 날 이후 장발장은 딴 사람이 됐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열심히 일해 백만장자가 되고 존경받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이웃을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요.
충고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

늘 하느님께서서는 내 이웃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충고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가르침이지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양 신부(서울대교구 오금동본당 주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희망이다

마주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고
영화를 보아도 좋고
한 잔의 커피에도 행복해지고
거리를 같이 걸어도 편한 사람입니다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듯 느껴지고
가까이 있어도 부담을 주지 않고
언제나 힘이 되어주고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잔잔한 웃음을 짓게 하고
만나면 편안한 마음에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를 잊도록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그대는 순하고 착해
내 남은 사랑을 다 쏟아 사랑하고픈 사람
나의 소중한 꿈을 이루게 해주기에
만나면 만날수록 편안합니다

나의 주위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갑니까??

●공소일반공지●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느질대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9월 순교 성월 기도

○이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불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주소서.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당신들은 이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교회를 이 땅에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소서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께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 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9월 영명축일 교우 - 축하합니다.

1일: 데보라 김대영 3일: 세레피아 이상희

8일: 셀리나 김희진 9일: 마르티노 김현덕,
데콜라 김영애 14일 레오비노 유무열 16일:
대건안드레아 서원일 18일 이레나 유진경,조셉
박두진 20일 진길 어거스틴 이상재 21일: 메튜
한홍구, 마테오 홍성훈 27일: 텔피나 서서영
29일: 가브리엘 박순웅, 미카엘 안세영, 미카엘라
안영애, 마이클 유지홍, 라파엘 유지현,미카엘
서운성,미카엘 박춘서,미카엘 고영호,미카엘
오세중, 가브리엘 홍성우

(누락된 교우는 각 구역장에게 연락하세요)

◎ 바뇌기도회 안내

9월 17일 7:30pm 이명희 형제집

◎ 예비자 교리

9월 30일 예비자 교리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
람들이 입교할 수 있도록 선교에 힘을 써주십시오.

◎ 한인 한글 학교안내

한글 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일시: 9월 13일

▶문의: 송혜선 선생님(519 893 0587)
소피아자매(5199 954 2544)

◎ 9월 구역모임

- ▶1구역: 9/26(금) 오후 6시, 유무열형제집
- ▶2구역: 9/21(일) 미사후, 성당교육관
- ▶3구역: 9/27(토) 오후 5시, 윤명원형제집
- ▶4구역: 9/26(금) 오후 7시, 장명길형제집
- ▶5구역: 9/27(토) 오후 6시, 구분우형제집
- ▶6구역: 9/27(토) 오후 7시, 이은희자매집

◎이스라엘, 이집트 성지순례

사순 2주, 3주 주님의 탄생과 수난과 부활을 체
험할 수 있는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일시: 2009년 3월9일 - 3월 23일 14박15일

순례비용: \$3,400(추가 비용 없음)

신청마감: 2008년 11월 9일(선착순 30명)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 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아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칩시다.

◎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봉헌합시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정숙하고 깨끗이
사용합시다.

◎ 주간 전례

▶9월 9일(화) 오후 8시, 연중 제 23주간화요일

▶9월11일(목) 낮 12시, 연중 제 23주간목요일

▶9월12일(금) 오후 8시, 연중 제 23주간금요일

◎추석 위령미사

다음 주는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조상님들과
먼저가신 부모 형제들을 위하여 모두가 위령미
사를 봉헌하여 주십시오. 미사 중 추석예절이 있
으니 가족단위로 자리를 앉아주십시오.

◎ 성모회 단풍관광

일시 : 2008년 10월4일 토요일

장소 : 산상호수 및 Prince Edward 주립공원

참가비 : \$30 (점심포함 및 간식 포함)

참가인원 : 선착순 50명

◎퀘백성지순례 및 단풍투어 3박4일

밴쿠버 한인공동체와 함께 퀘백성지순례

일시 : 2008년 9월29(월)-10월2일(목) 3박4일

참가비: \$399 (호텔,식사,코치버스교통편포함),

연락처: 세진 여행사, 오정호프란치스코
(905-949-6654)

2008-36

2008. 9. 7.

연중 제 23주일

▶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금,,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10월- 3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건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 례

해 설 |이정숙 차주 해설 이우원

화 답 송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아라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

하시고 그 화해의 이치를 우리에게 맡겨

전하게 하셨도다.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441) 주의 나라 임하면

봉 헌 (210) 나의 생명 드리니

성 체 (501) 받으소서 우리 마음

퇴 장 (437)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독 서

9 월 7일 한택중 한재희

9 월 14일 유무열 유진경

9 월 21일 김직현 김인자

봉 헌

9 월 7일 박재영 박경미

9 월 14일 한택중 한재희

9 월 21일 유무열 유진경

복 사

9 월 7일 구하람 이수민

9 월 14일 류지홍 노승범

9 월 21일 박규환 김건우

천 교

9월 7일 : 아외미사 9월 14일

2008 년 8월 24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790.00

성전건립: \$ 205.00

Total : \$ 955.00